

# 공격적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 풀무원식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체결... 260억원 투자 올해 5월 착공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지난 15일 국내 대표 '바른먹거리' 기업으로 유명한 종합식품기업 풀무원식품(주)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내 분양계약 체결함으로써 하립, 본죽(순수분) 등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을 유치해 식품산업 혁신성장 메카로 조성하는 기반을 활짝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기업유치 전략에 매진하고 있는 익산시의 발로 뛰는 행정이 괄목한 만한 성과로 나타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타 시·군으로부터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시는 풀무원식품(주)과 지난해 2월 11일 최초 투자협약체결 당시부터 익산시 여건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매력을 적극 홍보했고 풀무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농식품부를 뛰어다니는 노력 끝에 30,329㎡ 부지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84년 설립된 풀무원식품(주)은 신선식품음료사업을 주력으로 해 국내 최초로 포장두부와 콩나물을 통해 '바른먹거리'라는 식품의 새로운 가

치기준을 제시한 이래 두부, 생리대 등 70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식품기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친환경 식품유용, 먹는 샘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1991년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에 진출한 이래 중국과 일본에도 법인을 설립해 세계 1위 두부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풀무원식품(주)는 30,329㎡를 분양받아 약 260억원을 투자해 올해 5월에 착공 예정으로 수출중심의 기업비전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수출지

향형 정책에 부합되고 세계적인 식품기업·연구소 등 여러 분야의 네트워크와 비즈니스를 공동 추구하여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나라 바른먹거리 식품 선두주자인 풀무원식품(주)이 익산시 투자를 결정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풀무원식품(주)의 입주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시민이 행복한 익산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시간여행마을-고군산군도 관광 동시에 군산시티투어 노선 전면 개편 운행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 추이에 대비하고 관광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이용률이 저조한 금요일 코스는 파→새만금)를 폐지하고, 시간여행마을→고군산군도(당일, 1박2일코스), 시간여행코스(임피역→제민식문화관), 군산→서천(광역), KTX(익산) 연계코스를 새롭게 개편했다.

'시간여행마을→고군산군도 연계코스'는 근대역사박물관을 시작으로 초원사지관, 신흥동 일본식가옥, 동국사 등 근대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시대상을 골목투어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여행마을과 함께, 신선이 노닐던 선유도를 배경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아름다운 고군산길

을 걸으며 여행하는 도보여행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고군산 섬을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선상유람여행으로 관광객들이 선택해 투어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고군산군도에서는 익스프레스 공중해상 체험시설인 스카이선 라인과 해수욕장, 갯벌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시간여행마을과 고군산군도를 여유롭게 즐기기에 당일코스보다는 1박 2일 코스가 더욱 적합하다.

또한 상·하행선 KTX와 연결되어 있는 코스가 없어 불편함이 있었던 여행사와 관광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사전예약제로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투어 코스를 신설했다.

시티투어는 매주 토, 일요일에 운행되고,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군산 시티투어 앱, 해피투어진상(☎464-7866)을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전체 노선에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해 관광객들이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티투어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간여행마을-고군산군도 관광 동시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군산 시티투어 앱, 해피투어진상(☎464-7866)을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전체 노선에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해 관광객들이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티투어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전라도 3대 도시 익산 정체성 확실히 세워야”

### 김성중 익산시장 예비후보 “지역 발전시킬 준비된 일꾼으로 역할 다하겠다”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더불어민주당)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도전한다.

김성중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익산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체성이 사라지고 시민이 떠나는 현실을 극복하고 전라도 3대 도시 익산의 위상을 되찾고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익산은 훌륭한 부존자원과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성장과 발전의 문턱에서 매번 실패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며 “살기 좋아 사람이 모이는 창조도시 익산을 통해 전라도 3대도시 익산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00만 관광객 방문, 2배 시민소득 달성, 3만 사업체 증대, 4차 산업 거점도시 도약 등의 '1·2·3·4 전략목표'를 세우고 투명, 소통, 협업의 정책기조 아래 7대 실천전략과 50개 실천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먼저 역사문화·테마·웰빙치유 융복합 관광산업 구축에 나서겠다”며 “철도박물관을 유치하고 유네스코 백제유적 힐링 체험둘레길·벚길 조성, 의료치료 휴양관광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역균형 도농상생 소득증대 동반성장을 위해 농산물 직접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도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 향토발전세 도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도전한다.

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조화를 꾀하겠다”고 밝힌 김 예비후보는 “한류스타일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기·수소차 전용부품단지 조성, 드론산업 메카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마련하겠다”면서 “전방위적 주차장 건설, 지역화폐 발행, 젊은이 입대 상해보험 지원, 산모 산후조리 지원사업 추진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창조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AR·VR 연구센터를 유치하고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에 나설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선도중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도심 스마트 주차장 설치, 스마트 주거 시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도시로 익산발전의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세계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개설, 브랜드 축산물 종합타운 건립 등에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30여년 공직생활 동안 전국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체험으로 익힌 성공사례들을 익산에 접목하겠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킬 준비된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수요신청 결과에 따라 지역현안사업 3건, 시책수요사업 2건을 위한 특별교부세 48억원 등 총 278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당초예산 3,588억원의 보통교부세와 2017년도 정산분 230억원 확보에 이어 이번 특별교부세 48억원까지 추가 확보함에 따라 미뤄왔던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익산시는 지난해 총 58억원의 사상 최대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골목예산과 지역 현안사업 등에 편성할 바 있으며, 특히 조기시행이 가능한 익산시 지방채 1,592억원을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상환하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 옹포 유아숲체험원 조성

익산시는 지난해 10월 옹포산립문화체험관 개관에 이어 올해 옹포곰돌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조성해 운영중인 금마서동공원 내 유아숲체험원이 관내 유아교육기관·단체의 산림교육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로 올해 옹포곰돌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게 됐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 5천만원 투입해 옹포산립문화체험관 인근에 3천평 규모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유아숲체험원의 명칭을 아이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옹포 지명의 유래를 따서 옹포곰돌이 유아숲체험원으로 명명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경지 토양검정’ 무료 실시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하기전에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경지 토양검정’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양검정이란 토양(흙)을 침과와 장비로 활용해 토양에 함유된 성분을 분석해 농경지가 필요로 하는 양분을 측정하여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고 농업인들이 적정량의 비료를 살포하여 보다 건강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연간 4,000여점 가량의 토양시료를 분석하고, 해당토양에 대한 적정 시비량을 처방함으로써 토양에 맞는 시비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화학비료에

의한 오염방지에 힘써 토양환경을 보존 유지하며 농가경쟁력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경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5~10개 지점에서 15~20cm 깊이로 약 1kg 정도의 양을 혼합하여 필지지만, 면적, 재배작물명 등을 기록해 가까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되고 분석기간은 약 1주 정도 소요되며, 거름을 주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기타 토양검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기술보급과(☎63-850-4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전북 트래블마트 참가 관광상품 집중 홍보

군산시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8 상반기 전북도 트래블마트'에 참가해 시간여행축제와 고군산 군도 등 군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행사에 관광 민간업체인 베스트웨스턴 호텔과 군산페디베어뮤지엄, 에이브호텔과 함께 참여해 지역 간 상생을 통한 공동 협력 마케팅을 강화했으며, 행사 참가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1박 이상 체류하는 체류형 관광객을

대상으로 군산의 숙박 장소와 관광 코스를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행사에는 학회·기관 등 단체가 많이 참석하고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MICE산업과 관련 있는 만큼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주력했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군산시에 1박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시의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Dream Hub GUNSAN | 군산시 GUNSAN CITY